

제15편 - 제3신앙촌시대(제2부)

전도관 역사는 구세주를 출현시킨 역사였다(60회)

- 제15편
제3신앙촌시대(제2부)
- 인류의 구세주 예수?
- 예수는 가짜구세주요 마귀다
1)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는다
2) 돌연 다 결혼을 하라고 명함
3) 승리제단(勝利祭壇)이라는 명칭을 발표함
4) 예수는 가짜구세주요 대(大)마귀새끼다

제3신앙촌시대(제2부)

二. 예수는 가짜구세주요 마귀다

4) 예수는 가짜 구세주 대 마귀새끼다

아무리 영모님이 큰 종이라고 하지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엄청난 비유를 차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약점들을 들춰내서 쳐버리시는 것이었다. 어찌하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영모님의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난 후 다음 축복일이었다. 영모님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기 시작을 하셨다.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

“내가 피의 원리를 알려준 것이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창세기 9장 4절에 쓰여 있는 것이다. 이 생명인 핏속에 죄가 있는데 이 핏속의 죄를 해결 못하면 다 죽고 지옥가게 되어 있다. 죄인인 아버지 어머니의 피로 태어난 그 자식은 찢덩어리인 것이다. 그 자식은 태어나서 죄를 안 지었다 해도 부모의 피 즉 죄를 받아 태어날기 때문에 낳자마자 죽어도 그 찢덩어리는 부모의 죄값으로 지옥가게 되는 것이다.” 영모님은 왜 지금 이 시점에 피의 원리를 다시 한 번 강하게 증거를 하시는 것일까? 분명 중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영모님은 예수

에 대해서 핵폭탄의 말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사람이니까 흠과 티가 없는 의인이지요?’ 라고 제일성으로 질문을 던지시는 것이다. 교인들은 일제히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 그랬더니 영모님은 ‘마리아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면 그 마리아의 피는 더러운 핏가, 깨끗한 피인가?’ 라고 물으셨다. ‘더러운 피입니다’ 라고 일제히 대답을 하자 “그렇다면 죄인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열 달 동안 자란 예수는 깨끗한 피로 자랐나요, 더러운 피로 자랐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시니 순간 전교인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해졌다. “대답해봐” 다그치시니 교인들은 “더러운 피로 자랐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교인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대답하는 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소리였다. 그랬더니 영모님은 “사실대로 말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꾸물대는 거야!” 하고 야단을 치시고는 “마리아의 죄의 피로 만들어지고 마리아의 죄의 피로 10달 동안 자라난 예수는 찢덩어리야, 아니면 흠과 티가 없는 깨끗한 몸이야? 사실대로 대답을 해봐?” 라고 다그치신다.

전교인들은 난감하게 생각되었다. 이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인가! 잘못 대답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게 되는 것이다. 다들 대답을 못하고 숨만 죽이고 가만히 있을 있었다. “사실대로만 대답을 해! 누가 거짓말을 하라고 했어! 빨리 사실대로 대답을 하란 말이야!” 교인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를 대 마귀새끼라고 치기 시작하신 박태선 영모님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죄의 몸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나서는 다들 죽을죄를 지은 것처럼 정신이 아찔했다. ‘이거 큰일났구나! 구세주님을 죄인이라고 하다니!’ 당장 하늘에서 천벌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잔뜩 겁을 먹었다.

사실 2000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인류의 구세주로서 흠과 티가 없는 흰보따리 더 희고 양털보따리 더 깨끗하신 예수님이라고 믿어왔다. 그리고 그와 같이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시어 보배로운 피를 쏟아주시심으로 인류는 구원받게 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어왔다. 그런 구세주 예수님을 지금 일제히 죄인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두 쪽이 나는 한이 있어도 아니라고 해야 옳았을 답변이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이것을 어찌해야 하는가. 정신

이 아찔하고 온 우주가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영모님은 이 기세를 몰아 교인들이야 어떻게 생각을 하든 말든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계신 것이다. “예수는 찢덩어리가 틀림이 없어! 마리아의 더러운 죄의 피로 만들어지고 또 열 달을 그 죄의 피로 마시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예수는 찢덩어리가 틀림없어!” 다들 어떻게 정신을 가다듬어야 할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영모님을 따라온 것은 그분이 예수님의 고통을 그토록 생생하게 증거하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인류의 구세주라고 눈물로 증거하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수십 년간 정든 교회를 등지고 영모님을 따라왔던 것이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아 천년성의 왕이 되겠다고 생명을 내놓고 영모님을 따라왔는데 지금 영모님은 바로 그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몰고가시면서 증거하시는 것이다. 저번 영모님

은 변화했기 때문에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영모님은 저런 엄청난 말씀으로 예수님을 매도하시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따라온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 것인가?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영모님은 교인들의 이런 혼란스러워하는 생각은 개의치도 않으시고 계속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신다. “예수는 찢덩어리인 것이다. 예수는 자기 자신의 죄가 어떻게 온 것도 모르지 않았어! 예수는 구세주가 아니야! 대 마귀새끼야!” 영모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던지시는 순간 교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한 사이에 ‘야!’ 하고 신음소리를 마음속으로 터트렸다. “예수는 제가 찢덩어리면서 자기 구세주라고 인류를 속여 왔으니 그 예수는 마귀새끼야!” 영모님은 서슴지않고 교인들에게 알려준 피의 원리로 따져 본다면 영모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틀림이 없는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영모님의 몇단 논법으로 질문하는 질문을 받아 그와 같이 대답을 용감하게 한 것이다.

그후부터 영모님은 단에 서시기만 하면 예수 치기를 복날 개 패듯 하였다. 매일 예수를 치시는 것이 설교의 전부였다. 예수는 가짜 구세주요 대마귀새끼요 천하에 제일가는 개똥쌍놈이라고 쳤었다. 영모님은 예수를 가짜 구세주라고 쳐버릴 수 있는 이 시점까지 얼마나 당신이 예수의 충실한 종이 라고 하시며 행세를 해 오셨는가. 이는 전도관 교인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누구도 눈치를 못채게 완벽한 쇼를 하시고 오신 것이다. 예수를 그토

록 정성을 다하여 증거를 하시니 예수도 영모님을 자기의 충실한 종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을 것이다.

예수를 가짜라고 치시기 한 달 전만 해도 예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예수님의 사진은 다 가짜다. 진짜 주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그래서 주의 종이 바라본 주님의 모습을 제일 가는 화가를 시켜서 그리게 하였다. 그 사진 밑에는 ‘주의 종이 바라본 주님의 모습’ 이라고 써 넣었다. 그 사진을 일본에 보내서 사진으로 만들어 수일 내에 올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걸어놓은 주님의 사진은 다 떼버리고 주의 종이 바라보고 그런 진짜 주님의 사진을 걸어야 하지 않겠어?” 라고 하신지 한 달도 안 돼서 예수를 가짜 구세주요 대 마귀새끼라고 치시고 계신 것이다. 영모님은 예수를 치시는 그 시점까지 마귀가 전혀 눈치를 못채게끔 철저히 숨겨서 쇼를 하신 것이다. 하늘의 사람만이 하실 수 있는 엄청난 경이로운 모습이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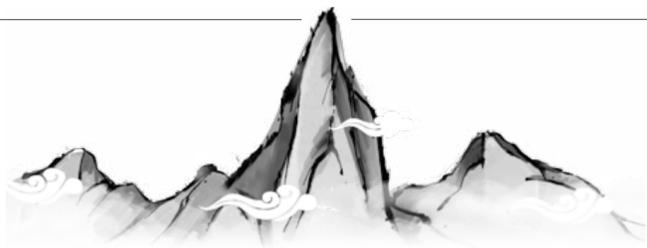
1955년부터 1979년까지 그토록 예수를 인류의 구세주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증거하던 예수를 25년 만에 가짜 구세주요 대 마귀새끼라고 뒤집어엮어버리신 것이다.

영모님은 진짜 구세주를 영적으로 낳아 출현시키기 위하여 그토록 해산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이 시점은 세번째 이기신 하나님인 완성자 구세주의 출현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 세번째 이기신 하나님인 아담이긴자가 진짜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다음부터 16편이 연재됩니다.

격암유록 新 해설 제48회

생미륵불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시니 만법교주요 유불선을 합친 하나의 기운을 받고 신미생으로 다시 오시다



弓乙論(三) 궁을론

三印之中海印之水 삼인중해인중수
甘露霧臨重生之理 감로무림중생지리
心發白死不死永生 심발백화불사영생
無數豐登三印糧粟 무곡풍등삼인량로

화우로(火雨露)의 삼인(三印) 가운데 해인(海印)의 물은 감로(甘露)가 안개 같이 임하는 것이요, 이것이 거듭남(重生)의 이치로다. 이 해인의 물은 마음을 백화화같이 피게 하면서 불사영생(不死永生)케 하니, 이는 곡식 없이 풍년드는 삼인(三印) 즉 화우로삼풍(火雨露三豐)의 감로양식(甘露糧食)이로다.

※ 격암유록에 등장하는 해인(海印): ① 無道大病(무도대병) 걸린자들 不死海印(불사해인) 나왔다네 - 「가사총론」, ② 天上靈物(천상영물) 甘露如雨(감로여우) 心火發白(심화발백) 永生之物(영생지물) 卽三豐之數也(즉삼풍지곡야) - 「은비가」, ③ 甘露如雨海印(감로여우해인) 火雨露三豐海印(화우로삼풍해인) - 「해인가」, ④ 人生秋收審判日(인생추수심판일) 海印役事能不無(해인역사능불무) 脫劫重生變化身(탈겁중생변화신) - 「석정수」

石井妙理水昇火降 석정묘리수승화강
湧泉心中毒氣不喪 용천심중독기불상
天牛耕田利在石井 천우경전이대석정

석정(石井)은 천정수(天井水)요 천정수는 생명수(生命水)요 생명수는 해인수(海印水)요 해인수는 감로수(甘露水)니, 이는 생명의 기운을 상승케 하고 화(火)의 심기(心氣)를 내려오게 하는 오묘한 이치로다. 석정(石井)에서 솟아나는 이 생명수는 마음속의 독기를 제거하니 목숨을 잃어버릴 일이 없겠네. 하늘의 소(天牛)가 밭을 가니 이로운이 석정(石井)에 있다. 다시 말해서 천우(天牛) 즉 우성인(牛性人)이 되는 영적 영마가 마음의 밭(心田)을 가니 이는 석정수(石井水)로 인성을 이롭게 하고 심령(心靈)의 변화를 가져다주면서 인생에게 영생을 주는 농사로다.

※ 격암유록에 등장하는 석정(石井): ① 心火發白心泉水(심화발백심천수) 寺畜七斗石井崑(사답칠두석정곤) 天繩之聖盤石井(천종지성반석정) - 「은비가」, ② 湧出心泉功德水(용출심천공덕수) 一飲延壽石井崑(일음연수석정곤) 毒氣除去不懼病(독기제거불구병) - 「생초지략」, ③ 利在石井天井水(이대석정천정수) 一次飲之延壽(일차음지연수) 飲之又飲連飲者(음지우음연음자) 不死永生此泉(불사영생차천) - 「석정가」

彌勒出世萬法教主 미륵출세만법교주
儒佛仙合一氣再生 유불선합일기재생

생미륵불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시니

온갖 법도의 교주요, 유불선을 합친 하나의 기운을 받고 신미생으로 다시 태어나신 분이시다.

※ ① 만법교주(萬法教主): “萬法教主(만법교주) 東華教主(동화교주) 大法天師(대법천사) 신공묘제허진군(神功妙濟許眞君) - 도교경전 「옥추보경(玉樞寶經)」에서 인용, “萬法教主(만법교주) 金剛大佛(금강대불) - 토암(土庵) 이승여(李承如 · 1874-1934)가 유불선 삼종일합(儒佛仙三宗一合)을 중시교리로 표방하며 창도한 금강대도(金剛大道) 「보경(寶經)」편에서 인용

② 유불선(儒佛仙): “儒佛仙運三合一(유불선운삼합일)의 天降神馬彌勒(천강신마미륵)일세” - 격암유록 「도부신인」에서 인용, “儒佛仙三 各人出(유불선삼 각인출) 末復合一 聖一出(말복합일 성일출)” - 격암유록 「은비가」에서 인용, “道者弓弓之道(도자궁궁지도) 無文之通也(무문지통야) 弓弓之道(궁궁지도) 儒佛仙合一之道(유불선합일지도) 天下之傑也(천하지중야)” - 격암유록 「도하지」에서 인용

紫雲南鮮彌勒后裔 지하남선포은후예
柿木出聖東西教主 시목출성동서교주

자쫓밧 신선(神仙)의 운기가 감도는 남조선(南朝仙)에, 2천 년 전 포도나무로 은밀히 위장했다가 후대에 이르러

진짜 구세주 하나님의 대명사 감람나무(柁木)로 출현하신 분이 성인(聖人)이시며 동서양의 종교를 넘나드는 인류의 구세주로다.

※ 포은지후(葡隱之後): 격암유록 「새사삼(賽四三)」에 나오는 “上帝之子斗牛天星(상제지자두우천성) 葡隱之後鄭正道(포은지후정정도령)”의 구절을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상제지자(上帝之子) 곧 천자(天子)는 그냥 큰 인물들에게 갖다 붙이는 흔한 두우성(斗牛星)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서 두우천성(斗牛天星)이로다. 포은지후(葡隱之後) 곧 포도나무(葡)로 비유되는 가짜 구세주 정도령(鄭道令)을 앞세우고 은밀하게 나중에 오시는 임금(后)이 진짜 구세주 정도령(正道令)이시네.”

포은지후(葡隱之後)의 포은(葡隱)이 포도나무 포(葡)자를 쓰지 아니하고 채소밭 포(圃)자를 써가지고 “圃隱之後鄭正道(포은지후정정도령)”이라고 원문에 쓰여 있다면 고려 말 충신 정몽주의 호(號)가圃隱(포은)이므로, 당연히 “포은 정몽주의 후손이 되는 정(鄭)씨 가문에서 정도령(正道令)이 출현하네.”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격암유록의 저자 남사고 선생은 조선 중기의 학자로서 충신 정몽주의 호를 잘못 표기할 리가 없다.

龍蛇渡南辰已之間 용사도남진사자간

桃源仙地海島真人 도원선지해도진인
鷄有四角邦無手인 계유사각방무수인

용사(龍蛇)는 지지(地支)로 진사(辰巳)요 진사(辰巳)는 방위로 동방(東方)이요, 인물로는 진사성인(辰巳聖人)이시다. 용사(龍蛇)이신 청제장군 목은 박태선 천사가 남쪽으로 건너와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완성된 백제장군 금은 조희성 십오진주(十五眞主)로 계보(系譜)를 이어가니, 십오진주 금은 조희성 천사가 곧 진사성인(辰巳聖人)이로다. 무릉도원의 선경(仙境)이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半島)의 나라

가 되는 대한민국이요, 이곳에서 진인(眞人)이 나오심이라. 이분이 ‘계유사각(鷄有四角) 방무수인(邦無手人)’이라는 구절에 감춰진 ‘정(鄭)’자의 암호로 오신 정도령(鄭道令)이로구나!

※ 계유사각 방무수인(鷄有四角 邦無手人); 계(鷄)는 유(酉)를 뜻하고 사각(四角)인 네 뿔은 유(酉)자와 연결된 대(大)자로 𠂇가 되는데, 방(邦)자에 수(手)가 없는 우부방(𠂇 = 𠂇)과 합자하는 동시에 입(入)자를 𠂇에 올려놓으면 정(鄭)가 되고 비결서장 정도령(鄭道令)을 뜻한다.* 吉星照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겸 편집인 김충만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에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우 422-826 홈페이지 www.victor.or.kr

광고 및 구독신청 전화 032) 343-9985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